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

순천소방서, 독거노인대상 기초소방시설 설치 지원

순천소방서(서장 구천회) 연향119안전센터(센터장 임창현)는 최근 순천 덕연동 주민 대상, 기초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 배부·설치 지원을 실시하였다.

이번 지원은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것으로 지역 의용소방대와 협력하여 실시하였다.

화재발생시 감지·대응 능력이 취약한 독거노인세대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서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고 화재안전대책과 화재발생시 대피요령을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 등)은 2012년 2월에 '화재 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시행 되었다.

임창현 연향 119안전센터장은 "혼자사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단순 배부를 넘어서 직접 설치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매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소방서는 올해 관내 약 850가구의 취약계층 대상, 설치율 52%를 목표로 계획·추진 중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힘이 되는 변화, 강진 복지 미래를 디자인하라"

강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복지리더 역량강화 교육 진행

"지역복지의 기초가 되는 조직…사각지대없는 강진공동체 조성"

강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7월 30일 "힘이 되는 변화! 강진 복지 미래를 디자인하라!"는 주제로 지역복지리더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은 지역 복지리더의 리더십 함양과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의제 및 전략 수립으로 협의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군협의체 위원과 읍·면협의체 위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 110여 명이 참석하였다.

초청 특강을 진행한 김철진 교수(광신대 복지상담융합학부)는 '힘이 되는 변화' 라는 주제로 지역 복지리더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지역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참석자들에게 질문하였다.

김 교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며 강진복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할 때 강진군만의 건강한 복지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는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중 1억원을 완납한 기부자를 대상으로 핸드프린팅 동판 전달식도 진행하였다.

핸드프린팅 동판을 전달받은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은 정호경 치과원장(전남63호, 강진2호)과 문경환 강진신협이사장(전남78호, 강진3호)이다.

정 원장과 문 이사장은 평소 이웃나눔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힘쓰고 있다.

강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의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확충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을 위해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 설립된 조직이다.

군협의체를 비롯하여 11개 읍·면에도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마을이장, 봉사단체 회원, 관계 공무원 등 238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협의체는 매년 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123명의 위원을 모시고 복지 상식, 지역의제 발굴(퍼실리테이션)을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역량강화 교육에 참석한 이승옥 군수(공동위원장)는 "협의체는 지역자원을 개발하고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어 도움을 주는 지역복지의 기초가 되는 조직이다"며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더불어 행복한 강진공동체 조성을 위해 군에서도 협의체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정태권 민간공동위원장(강진노인전문요양원장)은 "이번 역량강화 교육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며 "협의체가 복지 현안을 해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신안군 압해읍 복지 기동대, 소외계층 지원 활동 첫 시동

해충 예방·시원한 여름 나기 방충망 설치 주민호응

신안군 압해읍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저소득가구 8세대를 발굴, 방충망 교체 등의 소규모 집수리 활동을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동서, 복룡, 가룡리 3개 마을에 사업비 2백 만 원(도비 50%, 군비 50%)을 지원했다.

금년 4월에 첫 구성된 압해읍 복지기동대는 공무원과 유관기관, 민간인 9명으로 구성되어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을 발굴 선정, 소규모 긴급 수리, 주거 개선을 위해, 형광등 및 문고리 교체, 청소, 안부 살피기 등 사회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에 힘쓰고 있다.

특히, 더워도 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는 주거 취약세대에 농촌형 야외 방충망을 설치하여 해충의 피해를 예방하고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한 어르신은 "이제야 여름내 창문을 열고 지낼 수 있겠다며 너무 감사하다고 내 일처럼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고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압해읍장은 "우리의 작은 봉사가 어려운 이웃분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기쁨과 행복이 된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주민의 각종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해 주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사람다운 삶의 질 향상에 소외계층 등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고 강조했다.

폭염속 건강한 여름나기 밑반찬 전달

영암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영암군 영암읍(읍장 정제기)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유혜숙)는 지난 7월 26일 무더운 여름을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독거노인 및 장애인 35세대를 방문하여 열무김치와 계란을 전달하였고 더불어 대상자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이날 반찬봉사 활동에 참여한 협의체 위원 10여 명은 독거노인 및 장애인세대를 방문하여 폭염대처 요령, 건강관리 요령, 무더위쉼터 이용 등을 꼼꼼히 안내하여 폭염속 독거노인 및 장애인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였다.

반찬봉사에 참여한 유혜숙 위원장은 "무더운 여름 소외계층의 생활을 보살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현장 복지를 통해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영암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반찬봉사활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긴급구호비 지원사업을 저소득층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